

I. 평화감수성 교육을 통한 통일핵심역량 키우기

- P.E.A.C.E. 페다고지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 -

1. 연구의 필요성

•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

통일과 관련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보면 다양한 수업을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리의 엄중한 분단 현실에 대해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진짜 통일교육이 맞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통일’을 저학년 수준에서 다룰 때 학생들과 무언가 뜻을 모아 하나로 합치거나 모으는 행동에 대해 의미를 확대한 경우였다. 많은 준비를 하고 시간을 투입했을텐데 ‘통일교육’으로서 적절한 효과를 거뒀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해당 수업을 계획한 선생님이 저학년에 ‘통일’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통일교육’을 설계하고 진행한 것에 대한 고충도 깊게 느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2019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P.5’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교실에서 하고 있는 통일 교육은 ‘일부 교과에 편중되거나 실제 운영 시간이 미흡’하다, ‘교실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평화적 관점의 다양한 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가 부족’하다, ‘학생들의 발달수준,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연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 부족’하다, ‘관심있는 일부 교사들만의 통일교육 실천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강의식, 지식 전달 위주의 당위적인 통일 교육에 의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동기가 저하’된다.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일교육이 교실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통일교육’의 ‘평화·통일교육’으로의 확대

우리나라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다고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지지와 합의가 필요한 크나큰 과업과 같은 일이다. 설령, 범세계적인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내부의 의견조차도 통일에 대해 연령별, 세대별, 계층별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더라도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고, 하나의 안을 절대시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뤄질 일에 대해 관점을 넓히고, 시간을 충분히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에 더해 ‘평화·통일교육’로 영역을 더욱 확대해서 평화감수성과 보편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아주 어린 아이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고 구조적으로 이뤄지는 폭력 및 각종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른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평화감수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에게는 관련없어도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예민하게 느끼고 해결하도록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평화감수성’은 학교 안에서는 학교폭력 및 인성교육과 맞닿고, 최종적으로는 통일단계에서 평화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 즉, 화해, 평화, 통합 역량과 같은 통일 핵심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평화·통일교육’의 고려 사항

첫 번째는 기존의 대립과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뉴스를 중심으로 한 통일안보교육 보다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식 전달 중심에서 통일 핵심 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평화감수성 함양을 우선 순위에 놓고 매시간 연계하여 진행하되, 학생들의 시각을 넓혀주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네 번째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도심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구안한 「평화감수성 교육을 통한 통일핵심역량 키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미래 통일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위치를 자각하고 통일에 대해 이바지하려는 자세를 기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들이 분단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 평화로운 통일이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

둘째, 북한 사람과 북한 이탈주민,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 평화감수성을 키워 미래 통일한국을 함께 만들 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생 스스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프로그램의 진행은 교과시간 및 창의적 체험시간을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은 특정한 지역사회, 학년과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초등학교 학교에 일반화시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4. 용어의 정리

가. 평화교육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폭력과 비평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비판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여,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나. 평화감수성 교육이란?

공공연하고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은밀하고 구조적인 폭력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등 인간의 자아실현을 저해하는 비평화 상황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

다. 통일핵심역량이란?

통일단계에서 평화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능력. 주로 소통과 배려, 공동체 의식, 협력, 화해, 평화, 통합역량 등으로 이루어짐

II. 연구의 배경

1. 통일교육의 목표 및 주안점

가.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평화통일의 실천의지를 함양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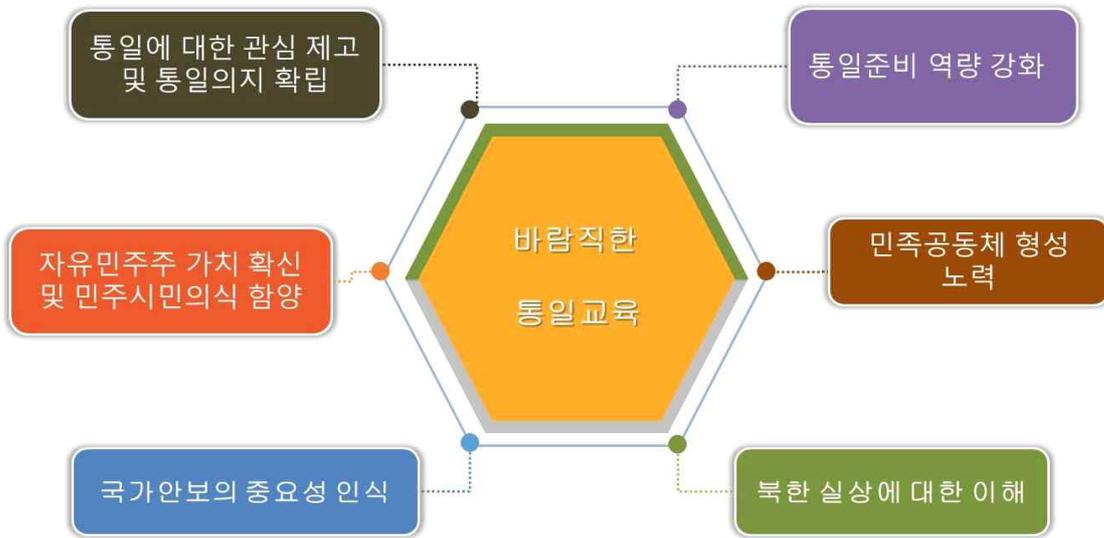
나. 통일교육 주안점

평화·통일교육방향과 관점²⁾에서 제시하는 통일교육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심어주고, 통일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실천 의지와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p.6.



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지도 방향



라. 통일교육의 지도방법



2. P.E.A.C.E 페다고지

참여식(Participatory), 대화식(Exchange), 문화예술적(Artistic-cultural), 비판-창조적(Creative-critical), 낯설게 하기(Estranging)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교육 철학과 방법론으로 주입식, 강의식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이다.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 참여도, 자발성, 자기발견적 배움, 상호학습, 구조와 개인의 연결성, 문화예술성이 도입된 배움, 체험과 관찰에 기반한 감수성 형성, 감수성과 가치, 사유와 실천역량의 유기적 결합을 추구하는 평화교육의 철학이자 방법론이다. 아울러 페다고지는 교육학을 이르는 단어이다.

가. 구성원의 역할

1) 교사

교사는 학습의 장을 열어주고 학생들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도록 돕는 사람

2) 교실과 학교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수평적 배움터로서의 다양한 장소

3) 학생

모든 학생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일방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중적 역할을 하는 구성원

나. 수업의 5개 형태

1) 참여식(Participatory)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활동을 하면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과정을 겪는 수업형태로 구성원이 빠짐없이 전원이 참가해야 더 의미가 극대화된다.

2) 대화식(Exchange)

질문과 대답등 대화를 하면서 모르는 것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구분해 나가는 활동이다.

3) 문화예술적(Artistic-cultural)

문화예술적 교육이란 놀이와 연극, 몸의 움직임, 소리와 색채 등 문화예술의 요소를 적극 활용해 움직임을 통해 내재된 평화 감수성을 일깨우는 활동

4) 비판-창조적(Creative-critical)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인식한 문제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는 활동이다.

5) 낯설게 하기(Estranging)

낯설음이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여겨졌던 문제들과 부딪혀보면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과정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느끼도록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폭력성을 찾는 활동이다.

활동(Do)⇒ 관찰(Observe)⇒ 대화(Exchange)⇒ 토론/성찰(Reflection)⇒ 종합성찰(Synthesis)
의 다섯 단계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결과를 갖도록 한다.

3.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참고한 자료 중 많은 도움이 된 선행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도	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 내용
2013	현유경	TPL활동을 적용한 통일 가꿈이 프로그램	소통으로 배우고, 놀이로 배우고, 가슴으로 배움
2013	김향숙	통통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질적 개선	재미있는 다양한 통합 통일교육 체험으로 통일 의지 다지고 공동체 의식 길러주기
2014	이진희	통일 꿈꾸미들의 한겨레, 하나되는 통일기차 여행	민족 정체성을 알고 북한 이해를 통한 공동체 의식 기르고 평화통일의 중요성 알림
2015	신승재	통일야! 놀자	스마트 교육을 기반으로 통일 미래세대 육성하기
2016	배미선	통일드론, 미래를 날다	스토리과 에피소드로 엮은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하기
2016	김진희	CHANCE! 함께 만드는 통일책, 열려라 통일문	함께 책 만드는 활동을 통해 남북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올바른 북한 알기 및 자주 안보 의식을 확립하여 통일의식을 내면화하기
2016	김문경	PEACE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화통일의 희망 나누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실질적인 대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의 희망을 나누는 활동

4. 시사점

제한사항 확인

학습자 및 학습 여건

- 통일교육에 대한 부족한 관심
- 초등학교 학생에게 어려운 내용
-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동일시
- 학년단위 활동에서의 위계확보 곤란
- 교사의 수업준비 곤란

제한 극복을 위한 시사점

다양한 시도와 열린 관점

- 체험위주의 학습놀이
-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
- 북한과 북한 주민을 분리 인식
- 학년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진행
- 통일교육원등 전문기관 자료 활용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 대상

서울반원초등학교 3학년 8반 총 29명 (남 14명, 여 15명)

2. 연구 기간

연구 기간 : 2019. 03 ~ 2019. 10

3. 연구 추진 절차

단계	운 영 내 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계획	·기초 실태 조사 및 분석	■	■										
	·문헌연구 및 선행 연구	■	■	■	■								
	·운영과제 선정		■	■									
	·운영 계획 수립		■	■	■								
운영	·참여식(Participatory)	■											
	·대화식(Exchange)				■								
	·문화예술적(Artistic-cultural)			■		■							
	·비판-창조적(Creative-critical)						■						
	·낯설게 하기 (Estranging)		■					■					
검증	·운영과제 검증 및 결과 분석					■	■	■	■				
	·보고서 작성							■	■				
	·운영결과 보완 적용									■	■	■	■

4. 연구 추진 과제

구분	추진 내용
·참여식(Participatory)	·처음 보는 친구 살피기 ·마음을 모아서
·대화식(Exchange)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문화예술적(Artistic-cultural)	·애국가를 크게 불러 봐요 ·통일 한국을 그려봐요
·비판-창조적(Creative-critical)	·북한학생들과 생활을 비교해 봐요 ·물이 부족해요
·낯설게 하기 (Estranging)	·휴전선 너무 불편해요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을까?

5. 실태 조사 및 분석

실태 조사를 위해서 구안한 설문지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5단계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되 학생에게는 자유 단어 연상 설문을 실시하여 보다 내면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 학생 대상 실태조사

북한에 대한 자유 응답

N=29

응답내용	휴전선, 백두산, 북한말, 6.25, 김정은, 나쁨, 무서움, 전쟁, 김정일, 핵무기, 위협, 가난한 나라, 영양실조, 조상, 떨어진 가족, 공산주의, 피난, 탈북, 많은 광산, 독재자, 사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대부분 6.25전쟁과 관련한 응답을 하고 있고 북한의 최근 군사적 위협과 관련한 핵무기, 그리고 경제적인 곤란에 대해 응답을 많이 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한 응답이나 긍정적인 응답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통일 문제

문항	1	2	3	4	5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		2	14	7	6	23	3.58
나는 분단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많은 고통을 겪었음을 알고 있다.	1	2	3	9	14	15	4.13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알고 있다.		2	8	8	11	18	3.96
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4	4	9	10	19	3.72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단의 고통에 대한 감성적 부분에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배경지식을 물어보는 경우에 아직 역사부분을 배우지 않아서 답변이 낮은 편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의외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보여서 보다 많은 교육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이해

문항	1	2	3	4	5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북한의 학교에 대해 알고 있다.	2	9	6	6	6	23	3.17
나는 북한 사회가 개인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6	12	4	5	23	3.07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이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저학년에서 감성적인 접근을 실시하는 통일교육체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험과 놀이위주의 활동을 많이 해 왔기에 지식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조금씩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 환경의 이해

문항	1	2	3	4	5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한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도움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4	6	12	4	3	26	2.86
나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3	6	9	10	19	3.82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힘이 월등한 만큼 단독으로나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한 학생들이 있었다. • 통일 이후 한국의 발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점진적인 통일을 통해 경제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 과제

문항	1	2	3	4	5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7	11	3	5	24	3
나는 북한 사람도 나와 같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5	14	2	4	25	2.89
북한 학생과 나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6	12	4	3	26	2.86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해보지 못한 북한 사람에 대해 지식이 없고 인식이 부정적인 편이며, 특히 또래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나. 학부모 대상 실태조사

N=20

문항	1	2	3	4	5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5	10	10	4.25
북한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다.		3	5	5	7	13	3.8
통일에 주변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		1	3	4	12	8	4.15
통일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2	3	13	7	4.35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높은 점수에 응답을 하고 있어서 고학력이 많은 학부모 집단임을 알 수 있었으나 북한의 내부에 대한 이해에 조금 낮은 점수를 응답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학교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IV. 연구의 실제

1. 참여식(Participatory)

참여식 수업의 목적

수업의 목적	<p>새학기 적응기간에 학생들은 어리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새로운 선생님과 교실, 아직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서먹서먹한 학급 친구들은 자칫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마저 먹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서먹한 분위기를 느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신체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표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학생이 참가하는 참여식 수업을 진행하였다.</p>
수업이 필요했던 사례	<p>‘선생님 너무 서먹서먹해요’,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오늘은 몇시에 끝나요?’, ‘언제 끝나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곤란을 표현한 학생들을 학년 초에 보면서 뭔가 부드러운 만남을 갖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p>

참여식 수업 활동의 실제

수업 주제	처음 보는 친구 살피기	마음을 모아서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에서 자기 소개를 하기 전에 다른 친구들과 움직임이면서 인사를 하고 밝은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면서 적응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반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종이에 함께 그리는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활동
교육과정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급 적응활동	미술 3 신학기
평화·통일과의 후속 연계 지도 가능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하는 즐거움 •타인에 대한 배려 •남북한간 문화,체육 교류
통일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과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의식, 화해, 협력

처음 보는 친구 살피기

통일 핵심 역량

소통과 배려

참여식(Participatory)-1

수업설계

- 수업 시기 : 3월 첫 주중
- 관련 단원 :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급 적응 활동
- 수업 의도 : 3월은 학년 초 구성원이 모두 바뀌어서 서먹서먹한 상태로 새로운 반에 들어왔다는 부담감이 강한 시기이다. 대부분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기 쉬운데,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발표가 어렵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긴장을 풀고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활동

- 학생들이 앉은 자리에서 책상과 의자를 모두 교실의 벽 쪽으로 치운다.
- 교실에 빈 공간이 생기면 3분의 시간을 주고 아무 말 없이 교실의 구석구석을 탐색하며 걷도록 한다.



관찰

- 3분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은 교실을 다니다가 마주치는 사람과 반가운 표정으로 짧은 인사를 한다. 단,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때 모든 학생이 서로 인사를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부끄러운 사람은 도구를 써서 얼굴을 직접 보지 않을 수도 있다.
- 인사는 자기가 원하는 말로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주의를 준다.



대화

- 남학생과 여학생 두 개의 원을 이중으로 만들도록 하고 남학생 또는 여학생 원을 바깥에 남은 한 성별의 원을 안쪽에 자리 잡도록 한다.
- 원을 이동시키면서 '얼음' 을 시키고 '땡' 과 함께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 그 자세에서 여학생이 먼저 일어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학생에게 궁금한 것을 돌아가며 질문한다.
 - 대답하는 학생은 표정과 함께 제스처도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유도한다.

토론/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활동을 마치고 나면 자리를 정리하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친구들을 발표하도록 한다. •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는 처음에는 눈이 보이는 경우와 안 보이는 경우, 두 번째는 밝은 표정과 아닌 표정, 세 번째는 제스처의 사용이 주는 느낌을 묻게 된다.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06 360 917 568"> ■ 토론 팔짱을 끼면 좀더 멀게 느껴진다. 눈을 보고 말하면 사람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눈이 안보이면 별로다, 지루하지 않았다. 동작이 있어서 좀더 친한 느낌이다 등 </td> <td data-bbox="917 360 1423 568"> ■ 성찰 서먹서먹한 관계라도 에서 활동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 데 자기가 주는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td> </tr> </table>	■ 토론 팔짱을 끼면 좀더 멀게 느껴진다. 눈을 보고 말하면 사람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눈이 안보이면 별로다, 지루하지 않았다. 동작이 있어서 좀더 친한 느낌이다 등	■ 성찰 서먹서먹한 관계라도 에서 활동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 데 자기가 주는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 토론 팔짱을 끼면 좀더 멀게 느껴진다. 눈을 보고 말하면 사람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눈이 안보이면 별로다, 지루하지 않았다. 동작이 있어서 좀더 친한 느낌이다 등	■ 성찰 서먹서먹한 관계라도 에서 활동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 데 자기가 주는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합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경우 처음 만나거나 다른 사람 앞에 서는등 긴장을 하게 되면 표정도 굳고 눈을 똑바로 상대방을 향할 수 없고, 동작도 작아지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된다. 따라서 첫 만남의 경우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알 수 있게 된다. 		
평화·통일 교육과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교육에 있어서 주는 의미는 다른 어떤 활동에 비해서 처음 친해지는 것에 문화, 예술, 체육등 몰두할 활동이 주어졌을 때 더 부담을 안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북한의 교류가 해당 분야를 우선 추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정리단계에서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북한 사람과 처음 만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서먹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마음을 모아서

통일 핵심 역량	공동체 의식, 협력, 화해	참여식(Participatory)-2
----------	----------------	----------------------

수업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기 : 3월 두 번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단원 : 미술 3월 신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의도 : 아직 친구 관계가 안정되지 않고, 서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아직 우리 반이라는 생각이 정립되지 않고 예전 학급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때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함께 1년 동안 협력해 나가고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지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업을 구성했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앉은 자리를 4인 1조 모둠 책상 형태로 변경한다. • 학생 4인당 A4용지를 1장씩 제공하고 각 개인은 색깔이 겹치지 않는 색연필이나 색인펜을 1개씩 갖는다. •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을 제한시간(종을 1번 치는 것을 기준으로 대략 개인당 1분) 안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눈을 감고 그리는 제한 조건을 둔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번의 종을 치고 나면 정해진 다음 순서의 사람이 이어받아 자기에게 정해진 색깔의 필기구를 이용해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을 그린다. • 자기 차례를 마친 사람은 이어지는 그림을 지켜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제한 조건을 둔다. 
<p>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의 차례가 두 번 지나가고 날 정도로 순서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 학생들이 눈을 뜨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린 그림을 본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른 상황을 한 번 더 그리도록 할 텐데, 잘 그릴 수 있는 전략을 짜도록 유도한다. 
<p>토론/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그린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새로운 A4용지와 함께 4명이 하나의 펜으로 함께 필기구를 잡고 그림을 그리는 과제를 부여한다. • 과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으로 제시하되 말로 발문을 하며, 이번은 눈을 뜨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도록 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424 1491 903 1653"> <p>■ 토론</p> <p>대체 뭘 그린 거지?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이지? 이거 누가 그렸어? 색깔 보면 네가 그렸는데? 왜 이렇게 된거지?</p> </div> <div data-bbox="919 1491 1398 1653"> <p>■ 성찰</p> <p>종이를 주는 방향조차도 완성을 위해 배려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말을 해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p> </div> </div>
<p>종합성찰</p>	<p>■ 두 번째 모두가 함께 그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학생들은 이 수업의 목표가 공동체의식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직 어려서 공동체 의식이 정확하게 표현은 못했지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협력 해요, 같은 말을 하면서 수업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었다.</p>
<p>평화·통일 교육과 연관성</p>	<p>■ 처음 같이 손을 잡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학생들은 같은 펜에 서로 손이 닿는 것을 부끄러워서 잡지 않는다. 잡는 것부터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엉터리 그림을 그리게 되지만, 함께 힘을 통해서, 말을 하고, 종이를 놓는 방향을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즐거운 일임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2. 대화식(Exchange)

대화식 수업의 목적

수업의 목적	•대화식 수업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실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면서 공감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질문을 통해 건드려주면서 생각을 확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과 더 생각해 보고 다시 질문을 더해 질문의 내용을 확장시키려고 수업을 준비했었다.
수업이 필요했던 사례	‘우리나라는 왜 이래요?’, ‘다른 나라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점이 문제래요’, ‘순국 선열이 뭐예요’, ‘조기를 다는 것은 뭔가요’ 등 기본적인 내용 및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밝은 청사진을 갖도록 할 필요가 느껴졌다.

대화식 수업 활동의 실제

수업 주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활동내용	•호국의 의미와 다른 나라의 처우 및 우리나라의 처우를 비교해보고 내가 순국선열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를 지키는지 확인하는 활동	•우리나라가 분단과 전쟁을 겪고 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하는 것을 이해하는 활동
교육과정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도덕 2
평화-통일과의 후속 연계 지도 가능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국과 보훈의 의미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 •6.25 전쟁 •이산가족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극기 그리기 및 태극기의 의미 •현충일에 조기 게양 •분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의 소비가 없을 때 통일 한국의 발전
통일핵심역량	•공동체 의식, 협력, 화해, 평화	•공동체 의식, 협력, 화해, 평화

감사합니다.

통일 핵심 역량

공동체 의식, 협력, 화해, 평화

대화식(Exchange)-1

수업설계

- 수업 시기 : 6월 첫 번째 주
- 관련 단위 : 창의적 체험활동 통일교육
- 수업 의도 :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계기 교육을 진행하면서 순국선열의 노고에 대해 내가 해야 할 올바른 모습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고자 했다.

활동

- 테이킹 찬스(찬스이병의 귀환) 영화 일부분 시청 (5분)
- 보훈과 관련한 미국 영화인 테이킹 찬스를 보면서 미국사람들이 행동하고 예의를 표하는 모습을 확인해보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알아보기



고위 장교가 제일 낮은 계급의 병사에게 경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는 모습

운구차량에 예의를 표현하는 차량모습

관찰

- 국군 유해발굴단에 의해 아직도 수습중인 6.25 전쟁의 사망자 유골 수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쟁의 뒤처리가 이뤄지는 모습을 확인
- 순국선열에 고마운 마음과 전쟁의 참상을 함께 느끼는 활동 진행



전사자 유골 수습

확인한 유골 모시기

유골 운구장면

대화

- 유일하게 조기로 게양하는 태극기 설명을 통해 현충일의 의미
- 모르는 사람이라도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느껴서 발표하게 되었다.

- 순국선열의 뜻과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많은 분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감상문 쓰기 활동



토론/성찰

■ 토론

‘평소에 제가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줄 몰랐어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어요.’, ‘태극기를 꼭 달아야 겠어요.’ 등

■ 성찰

많은 희생 끝에 지금 내가 있지만, 현충일에 국기 다는 활동을 비롯해 별달리 감사를 표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종합성찰

■ 순국선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한편,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도 깨닫고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겠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

평화·통일
교육과
연관성

■ 전쟁 후 거의 7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유해로 발굴되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고 절대로 전쟁의 참혹함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통일 핵심 역량

공동체 의식, 협력, 화해, 평화

대화식(Exchange)-2

수업설계

■ 수업 시기 : 6월 두 번째 주

■ 관련 단원 : 도덕 2.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실천해요.

■ 수업 의도 : 현충일 계기교육 후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을 최선을 다하는 삶과 연결해 이야기해 개인의 삶과 연결해보고자 했다.

활동

- 우리나라의 어려운 여건을 느낄 수 있도록 영화(국제 시장 관람)의 일부분을 시청하되, 6.25전쟁 부분과 어렵게 살던 부분은 발췌하되 베트남 전쟁등과 같은 부분은 수업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제외했다.





영화시청
광부파견 검사
베트남전쟁을 겪으며

관찰

- 국제시장을 통해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예전 이산가족상봉 모습과 연결지어 발표해 보도록 했다.





KBS방송국 앞
이산가족의 물결
이산가족 상봉 모습

대화

- 우리나라에서 이산가족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론/성찰

학급에서 진행한 사랑의 동전 모으기 활동이 처음으로 나온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국가임을 알게 되었다.

■ 토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등



■ 성찰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지금의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다는데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종합성찰

- 순국선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한편,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도 깨닫고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겠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

평화·통일 교육과 연관성

- 전쟁 후 거의 7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모습으로 수업을 마무리해서 연계 진행하였다.

3. 문화 예술적(Artistic-cultural)

문화 예술적 수업의 목적

수업의 목적	놀이와 연극, 몸의 움직임, 소리와 색채 등 문화예술의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움직임을 통해 내재된 평화 감수성을 일깨우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욕구와 표현의 욕구를 수업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자 했다.
수업이 필요했던 사례	‘선생님 뭔가 그리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요’ ‘저는 꾸미는 것을 좋아해요’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가 관심 있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 다만, 학년의 특성상 연극과 같은 활동은 준비와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문화 예술적 수업 활동의 실제

수업 주제	애국가를 크게 불러봐요	통일 한국을 그려봐요
활동내용	•애국가를 크게 불러보고 가사를 보지 않고 애국가를 4절까지 스티커로 맞춰 가면서 가사의 뜻까지 알게 되는 활동이었다.	•하나로 합쳐진 통일한국을 상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통일 한국 지도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
교육과정 연계	음악 의식곡	미술 4
평화-통일과의 후속 연계 지도 가능부분	•통일 이후의 남한과 북한과의 국가 상징 설정, 국화, 국기, 국가등 •애국가의 정확한 의미를 가사를 외워 부르기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의 사회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긍정적인 모습
통일핵심역량	•공동체 의식	•소통, 평화, 통합

애국가를 크게 불러 봐요

통일 핵심 역량

공동체 의식

문화 예술적(Artistic-cultural)-1

수업설계

- 수업 시기 : 5월 3주
- 관련 단원 : 음악 의식곡
- 수업 의도 : 방송조화를 진행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크게 부르지 않고 입만 벌리는 것을 보고 애국가를 다시 부르게 되었다.

활동

•우리 학교는 애국가를 2주에 한 번씩 1~4절을 돌아가며 부르게 된다. 당연히 방송에 애국가 가사가 잘 보이게 되어 있고, 방송에 아이 목소리로 노래도 녹음되어 있다. 그래서 애국가를 보고 부르게 했다.

관찰

•애국가를 부르고 난 후 가사를 모두 아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은 자신있게 안다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애국가를 1절부터 다시 부르되 화면을 송출는 않고 배경음악으로 반주만 제공해서 불러 보았다.
•의외로 학생들은 3학년이나 되었음에도 애국가를 부르지 못했다. 대부분 가사를 정확히 잘 몰랐다.

대화

•애국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가사를 정확히 아는지 물었을 때 학생들은 자신 없이 대답을 했었다. 왜 모르냐고 물어보니 아주 가끔 부르고 (2달에 1번 다시 1절로 돌아옴) 밖에서 부를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다.

토론/성찰



■ 토론

애국가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었다. 한자로 된 단어가 많아서 의외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 질문이 많았다.

■ 성찰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교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교사의 성찰 기회였다.

종합성찰

• 애국가의 의미를 짚어주고 나니 무슨 의미인지 계속 질문을 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애국가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당연히 알 것 이라는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평화·통일
교육과
연관성

■ 통일이 되고 나서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역사적 정통성을 고려했을 때 애국가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국가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국민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상징성이 강한 노래인 만큼 의미를 정확히 알고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을 그려봐요

통일 핵심 역량

소통, 평화, 통합

문화 예술적(Artistic-cultural)-2

수업설계

- 수업 시기 : 7월 1주
- 관련 단원 : 미술 4.상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내가 상상한 그림그리기
- 수업 의도 : 통일이 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나라 지도 위에 표현하면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했다.

활동

- 모둠별로 그리도록 했는데 그림의 도구나 주제는 제한을 하지 않고 모둠원들이 상의해서 긍정적인 통일 한국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했다.

관찰

- 학생들의 그림을 통해 통일에 대해 생각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 모듬의 의견이 결정되면 다른 조 신경을 쓰지 않고 활동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화

- 통일을 하나의 이미지화 해서 표현하다 보니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듬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외로 분야가 다양하게 나와서 학생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성찰



- 토론
그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 흥겨움, 관광, 통일 이후의 남북한 화합 등 다양한 의견이 그림으로 표출되었다. 그림으로 표출하기까지 제일 중요한 통일의 모습을 학생들이 선정할 수 있었다.

- 성찰
평소 통일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고가 열려서 확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성찰

- 학생들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제시하지 않는 부분까지 짚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학생들끼리도 다른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발표를 통해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화·통일
교육과
연관성

- 통일한국에 대해 이미지화해서 그려보도록 한 것은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내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긍정적인 통일국가의 모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 위해서였다.

4. 비판-창조적(Creative-critical)

비판-창조적 수업의 목적

수업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알고 있거나 수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고 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난 후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통해서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고 현재의 문제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거시다.
수업이 필요했던 사례	<p>‘선생님 북한 사람들은 왜 가난해요?’ ‘북한 사람들은 왜 김정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북한은 왜 우리보다 넓고 자원이 많다면서 못 살아요?’ ‘북한 사람들은 게을러요? 등과 같이 주변 환경과 성장과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애초에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여기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사람의 인식과 능력은 주변과 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도록 하고자 했다.</p>

비판-창조적 수업 활동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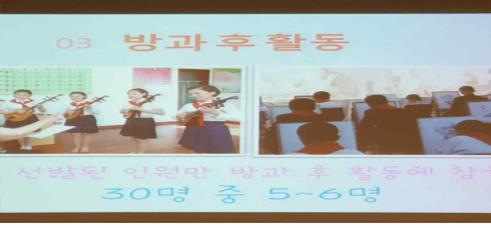
수업 주제	북한 학생들과 생활을 비교해 봐요	물이 부족해요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학생과 북한 학생의 시간표를 비교하고 하루 일정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해당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생각과 능력이 다를 수 있게 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물분쟁의 사례를 통해서 흔한 자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과도 같을 수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선택에 제한적인 것을 이해하는 활동
교육과정 연계	사회 2-1	도덕 4
평화·통일과의 후속 연계 지도 가능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주의의 특성 정치지도자에 대한 이상화 북한의 사회 북한의 정치 북한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및 국내 난민 유입 문제 자원의 절약 및 현명한 소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의 고통 통일이후의 준비감축 NGO 활동과의 연계지도
통일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 배려, 평화,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 배려, 평화, 통합

북한 학생들과 생활을 비교해 봐요

통일 핵심 역량

소통, 배려, 평화, 통합

비판-창조적(Creative-critical)-1

수업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기 : 8월 4주차 ■ 관련 단원 : 사회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 수업 의도 :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는 주변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북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같은 학교생활을 하는 시기의 내용을 우리나라 학교와 비교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과 북한의 하루 일과 및 학교생활, 교과서, 방과후 활동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학교의 학교 시간표와 교과서 내용의 차이점 구분하기 • 교과목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학습 이해하기 • 방과후학교와 방과 후 활동의 차이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사전 연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해당 자료를 수업에 투입하였다. •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일과와 비교해 북한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질문과 응답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조별로 궁금한 내용을 뽑아 조사하고 발표하였다.
토론/성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data-bbox="424 1563 900 1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소질과 적성에 관련이 없는 학교진학을 가장 어렵게 느꼈다. 공산당원에 대한 특권과 세뇌를 이해하기 곤란해 했다. </div> <div data-bbox="903 1563 1394 1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찰 출신성분, 이상화에 따른 교과서 집필등을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해 이해하기 힘들어했다. </div> </div>
종합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모습의 북한 교과서와 학교 운영과 관련해 아직 어리지만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답답함과 구성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았다.
평화·통일 교육과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통일이 되면 만나게 될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미래를 향해 대비하고 있지 못한데, 그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환경의 문제임을 인식해서 잘못된 환경과 사회를 바로 잡으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있었다.

물이 부족해요

통일 핵심 역량

소통, 배려, 평화, 통합

비판-창조적(Creative-critical)-2

수업설계

- 수업 시기 : 8월 4주
- 관련 단원 : 도덕 4. 아껴 쓰는 우리
- 수업 의도 : 우리나라는 크게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물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활동

•세계각지의 물 분쟁(중국, 이집트)와 케냐의 극단적인 가뭄으로 인한 개인의 삶이 파괴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

관찰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이집트의 예를 보면서 자원의 활용이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케냐의 극단적인 가뭄이 학교도 가지 않고 물을 길으러 다니는 어린이들을 만드는 문제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인간에 대해 연민을 느끼게 된다.

대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무조건 우리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범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하나의 국가를 파괴시키는 상황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토론/성찰



■ 토론
 자기나라 국민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 국민이 겪는 고통은?

■ 성찰
 우리가 있는 지구라는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종합성찰

•케냐의 예에서 보듯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한 지적 능력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르고 이질적인 환경에서 자란 북한 사람들이 겪을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평화·통일
 교육과
 연관성

■ 통일이 되고 난 후 중국, 러시아와의 접경이 늘어나고 수자원을 비롯한 각종 자원의 활용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을 통해 통일이후 무조건적인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

5. 낯설게 하기 (Estranging)

낯설게 하기 수업의 목적

수업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로 나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나와 연관이 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갑자기 나와 관련 있는 일이 되도록 만듦으로서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데 있다.
수업이 필요했던 사례	<p>‘선생님 휴전선은 왜 생겼어요?’ ‘휴전선은 아무나 갈 수 없지요?’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으니까 휴전선을 볼 일이 없겠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모두 사라지게 되지 않나요?’ 등과 같이 지금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와는 관련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p>

낯설게 하기 수업 활동의 실제

수업 주제	휴전선! 너무 불편해요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을까?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전선을 통해 갈라진 우리나라를 느끼는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차별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활동
교육과정 연계	국어 1-4	도덕 5
평화·통일과의 후속 연계 지도 가능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계기 교육 •통일의 필요성 •6.25 이후 우리나라의 국력 상승 •이산가족 문제 •통일비용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부터의 빈부격차 •난민 문제를 통한 인권인식 •내가 쓰는 자원의 낭비 •건강한 소비
통일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해, 평화, 통합 	<p>화해, 평화, 통합</p>

휴전선! 너무 불편해요

통일 핵심 역량

화해, 평화, 통합

낮설게 하기 (Estranging)-1

수업설계

- 수업 시기 : 4월 3주
- 관련 단원 : 국어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 수업 의도 :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아예 통일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있어서 무조건 미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많은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수업을 계획했다.

활동

- 특별실로 이동한 후에 별도의 예고없이 교사가 임의로 휴전선을 교실 한가운데에 그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평상시 익숙하던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을 주고 일정한 시간을 유지했다.
- 학생들의 불편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과할 경우도 교실의 앞뒤 출입문 중에서 한 곳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하였다.

관찰

- 양쪽은 대표를 통해서만 물건을 옮길 수 있고, 모든 의견을 상대방한테 넘길 때에는 편지를 작성해서 진행했다.
- 애초 교실에서 구성했던 모듬이 특별실에 와서 앉자마자 분리되어 모듬활동을 진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분단 후 대표를 통한 물건전달



교실 내 분단선 긋기

대화

- 모든 내용은 문서화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했으며, 줌전까지도 같은 모듬이었다가 격식을 갖춰서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 낮설어 했다.

토론/성찰

-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면서 DMZ의 생태를 파악하고 분단의 현실을 느낀다.
- 효과적으로 이동이 어려워 국가의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기왕 보존된 자연을 통일이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토론

교실에 분단선 그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지금이라도 없애면 안 되나요? ‘통일이 되면 휴전선은 없어지나요?’

■ 성찰

강제로 갑자기 그어진 휴전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을 통해서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

종합성찰

- 학생들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휴전선을 살펴 보고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가 우리나라의 발전 역량을 가로막고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추운 겨울

휴전선 경계투입 모습

북한군 초소

평화 · 통일 교육과 연관성

- 통일교육과의 연관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에 대해 불편함을 인식하고 부득이하게 투입되고 있는 여러 면의 불편을 제거한다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음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휴전선 내의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 여부를 궁금해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을까?

통일 핵심 역량

화해, 평화, 통합

낯설게 하기 (Estranging)-2

수업설계

- 수업 시기 : 9월 3주
- 관련 단원 : 도덕 5. 함께 지키는 행복한 세상
- 수업 의도 :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좋은 면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했다.

활동

-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1편은 분실물 테스트 3분, 2편은 서울이 안전한 이유 3분)

관찰

대한민국 세계 치안 순위 1위 영광 "술에 적신 밤도 안전"
 전세계 치안 순위 1위 동국...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날짜 2015-11-13 00:10

Rank	Country	Safety Index
1	South Korea	83.10
2	Singapore	82.92
3	Qatar	80.00
4	Japan	79.15
5	Taiwan	78.78
6	Hong Kong	78.14
7	Georgia	77.25
8	United Arab Emirates	76.69
9	Denmark	74.97
10	Malta	74.45
11	Estonia	73.82
12	Switzerland	73.77
13	Austria	73.72
14	Finland	73.43
15	Slovenia	72.96
16	Armenia	72.05
17	Belarus	71.76
18	Croatia	70.96
19	Romania	70.01
20	Saudi Arabia	69.72

사진=NUMBICO 캡처



대화

•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부분을 짚은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결과 예상 질문을 했다. 의외로 대부분이 낮게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어보면 뉴스가 그런 나쁜 내용만 나온다고 하고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주의를 많이 줘서 나오는 문제였다.

토론/성찰

• 세 번째 동영상은 백인과 동남아시아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비교 영상이었는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동일하게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 토론

학생들은 영상에서 나오는 동남아시아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외모, 입은 옷, 부자인지의 느낌등으로 판단했다.

■ 성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분명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종합성찰

• 외모, 키, 입은 옷, 부유한 느낌, 백인인지 여부 등 우리 사회가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이것을 불편하게 느꼈다.

평화 · 통일
교육과
연관성

■ 통일이 된다면, 오랜 기간 벌어진 경제력의 격차와 미용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말과 다른 북한의 어조와 어휘 사용은 습관이니만큼 쉽게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보이는 무시, 차별, 편견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V. 연구의 결과

1. 연구 결과

가. 사전 사후 설문 비교

활동을 모두 마치고 학생들의 변화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설문을 통해 검증 및 분석하였다.

문항		사전 평균	사후 평균	증감
통일 문제	나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	3.58	4.10	+0.52
	나는 분단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많은 고통을 겪었음을 알고 있다.	4.13	4.41	+0.28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알고 있다.	3.96	4.27	+0.31
	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72	4.20	+0.48
북한 이해	나는 북한의 학교에 대해 알고 있다.	3.17	3.96	+0.79
	나는 북한 사회가 개인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3.07	4.14	+1.07
통일 환경의 이해	나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모든면에서 압도한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도움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2.86	3.13	+0.27
	나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82	4.27	+0.45
통일 과제	나는 통일 되면 남한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3	2.58	-0.42
	나는 북한 사람도 나와 같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89	3.55	+0.66
	북한 학생과 나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86	3.44	+0.58

나. 사전 사후 설문 비교 분석

분석결과	
증가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변동을 기대한 문항 11개 문항 중 10개 문항이 상승했으며, 특히 3학년 교육과정에 약간씩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이해 영역이 가장 상승폭이 컸다. 가장 높은 상승치는 북한사회가 개인의 발전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이해가 증가한 내용이었다.
감소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이후 북한 주민과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으나 환경의 차이로 인해 이런 것이 어려울 것임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했다.
예상 밖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는데, 학생들과 설문 후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가역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이를 긍정해서 결과로 확인되었다.

2. 결론

평화감수성 교육을 통한 통일핵심역량 키우기 [P.E.A.C.E. 페다고지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를 실행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감수성 교육을 통한 통일핵심역량 키우기」 프로젝트는 과거 진행해 왔던 대립과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뉴스를 중심으로 한 통일안보교육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관점을 적용하기가 수월하다. 통일안보교육을 가르치다 보면, 남한과 북한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소통해나가는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라 누가 승리하는가 하는 힘의 우위를 다투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평화감수성 교육을 통한 통일핵심역량 키우기 프로젝트는 과거의 대립과 경쟁을 토대로 미래에도 같은 수고를 반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다.

둘째, 「평화감수성 교육을 통한 통일핵심역량 키우기」 프로젝트는 통일에 대한 수많은 종류의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중심이 아니라 통일핵심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적절하다. 정해진 콘텐츠를 과정에 따라 맞춰 진행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상호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 상호 작용을 토대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학생들은 서로를 통해서 소통과 배려, 공동체 의식, 협력, 화해, 평화, 통합역량과 같은 통일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다.

셋째, 「평화감수성 교육을 통한 통일핵심역량 키우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다루는 내용을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만이 아닌 뉴스나 시사 내용 중에서 평화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쉬워서 동기 유발 과정이 수월해진다. 아울러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생각을 열기 위해 잠깐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사고를 진행해야 한다. 덧붙여서 수업의 내용이 종료됨에도 교사의 발문에 따라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져 전개될 수 있어서 전체적인 통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

3. 제언

본 연구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통일교육은 소수의 교과목을 바탕으로 실시하지 말고 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의 평화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교육과정의 요소요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와 융합해 지도를 함으로서 충분한 지도시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통일교육은 지식의 전달 및 행사를 통한 일회성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평화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통일 시대에 어떤 장면에서 경쟁하게 될지도 모르는 북한 사람들을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평화·통일 교육이 즐겁고 긍정적인 기억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통일부 통일교육원(2019)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통일부 통일교육원(2018)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교육원(2017)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2017)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3,4학년용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 자료

통일부 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uniedu.go.kr>